

[보도자료] 쿠팡플레이 예능 '원희는 스무살' '독한 맛' 대신 '서툰 맛' 통했다! '인생 언니'들 무장해제 시킨 '원희 올바른 사용법' 호평 속 온·오프라인 흥든 화제성 입증!

2026. 7. 10.

쿠팡플레이 예능 <원희는 스무살>이 대세 원희의 무해한 매력을 앞세워 오리지널 예능 최고 평점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원희는 스무살>은 아직 처음인 것 투성이인 '원희'의 스무 살 버킷 리스트를 언니들과 함께 경험하며 성장해 가는 공감형 리얼버라이어티 예능이다. 공개 직후 쿠팡플레이 인기작 TOP 20에 빠르게 진입하며 오리지널 예능 중 최고 평점인 4.7점을 굳건히 유지하며 호평을 얻고 있다.







인기 비결은 원희의 '서툰 맛'과 당당한 '젠지미(Gen-Z)'다. 무대 위 화려한 아이돌 모습을 내려놓은 원희는 서툴지만 주저 없이 도전하는 현실적인 스무 살의 얼굴로 시청자 마음에 스며들었다.

복싱 링 위에 주저앉아 투정을 부리거나 놀이공원 아르바이트 전선에서 실수를 연발하면서도 특유의 당찬 에너지로 돌파하는 원희의 모습은 영락없는 '요즘 젠지' 그 자체다. 새로운 도전 자체를 즐기는 모습은 고자극에 지친 시청자들에게 웃음과 공감, 힐링을 선사하며 원희의 가장 자연스러운 본연의 매력을 완벽하게 이끌어낸 '원희의 올바른 사용법'이라는 평을 받고 있다.

여기에 이은지, 있지(ITZY) 예지와 채령, '아기 맹수' 김시현 셰프, 르세라핌(LE SSERAFIM) 홍은채, 파트리샤 등 개성 넘치는 '인생 언니'들과의 만남은 게스트마저 무장해제 시키며 무해한 재미를 터뜨렸다. 함께한 언니들은 자신의 스무 살을 되돌아보며 따뜻한 응원을 건네는가 하면, 때로는 원희에게 위로받고 눈시울을 붉히는 등 깊은 공감대를 불러 일으켰다.

시청자들은 "이 무해한 조합 너무 좋다", "둘이 초면인데 왜 이렇게 자매 같냐. 순둥순둥 기니들의 만남 같음, 원희가 시현 셰프 진짜 좋아하는게 보이네", "원희랑 파트리샤 진짜 어린이들처럼 잘놀다", "은채 원희랑 있으니깐 언니미 나오네ㅋ 진짜 딱 언니들이 데리고 다니고픈 킨동생", "완전 인간 충전기", "앞으로 모든 편들 다 내 밥친구 될 예정" 등 대체불가 원희의 매력과 게스트와의 신선한 조합이 탄생시킨 힐링 예능에 뜨거운 호응을 보내고 있다.



